

# 중복합격생 합격수기

## 목차

### I. 소개

-생활환경/ 2016년 첫해/ 임용을 하게 된 동기

### II. 공부의 주의점과 합격요인 분석

### III. 일별계획

## I. 소개

### -생활환경

드디어, 3년 반만에 4수로 합격하여, 합격수기라는 것을 저도 쓰게 되네요. 합격자 발표사례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목을 잡네요. 정말 가고싶었던 자리였는데...ㅠ 가지를 못했지만 합격수기도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던 것이어서 어떻게 합격수기를 써야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네요. 첫해에는 반년밖에 소나기식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은 어려웠구요. 재수때부터 1차는 합격은 하였으나, 2차에서 최종탈락 2번하고 3번째에 붙었어요.

우선적으로, 저는 해가 거듭할수록 점차적으로 상황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이렇게 합격증을 받게 된 케이스예요.

아이의 엄마, 아내, 그리고 부모님의 아픔, 시험불안증 등 다양한 상황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공부를 시작한 임용생이었어요. 저는 지방의 국립대학에서 교직이수를 하여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자세로 늘 갖고 있어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해냈었어요.

시업니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이들 돌봄을 제일 컸었죠. 오로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매일 도시락 점심과 저녁을 싸주셔서 독서실에 아침에 들어가면 새벽에 나왔습니다. 첫해는 독서실 휴게실이 추어 뜨거운 물에 밥말아먹고 울면서 먹었네요. 이런 사정이 안타까우셨는지 때로는 저녁에 뜨신밥을 갖기어서 배달도 해주셨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 밥이 그렇게나 맛있었는지 몰랐네요. 감동의 눈물과 힘듦의 눈물로 정말 눈물젖은 밥을 먹었죠. 정말 울 시업니께 사랑을 배워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본격적으로 저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6년 첫해

저에게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서 첫 해에는 신랑의 외로움, 큰 아이의 엄마의 빈 자리가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 -2017년 두번째 해

2번째 해에는 아이의 불안도가 극대화되어 심리치료까지 받을 정도였어요. 어린이집에서는 펍 하면 빠치고 소리지르고, 담임선생님도 힘들어해서 심리치료받을 까요? 하니 바로 연계해 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 자신의 뜻대로 안되면 울고 불고 소리지르고...정말 아이가 안 좋아지니,,,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심리치료 덕에 조금은 완화되어 7살, 8살 때에는 '엄마, 공부 잘하고 오세요. 그래서 꼭 선생님이세요~' 라고 힘을 주더라고요. 둘째는 3살 (20~21개월)때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고, 어렸을 때 떨어지니, 할머니와 많이 지내게 되어 엄마품보다 할머니를 더 찾게 되어 한 편으론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합격한 해에 준비할 때 막내가 더욱 엄마를 찾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그리워하고 힘들어 할 때 정말 많이 울면서 준비했어요.

### -2018년 세번째 해

3번째 해에는 부모님의 아픔으로 정말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아빠의 어깨가 끊어지셔서 친척오빠의 병원에 수술하러가셨다가 엄마가 오히려 더 큰 수술인 척추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다리가 좋지 않으셔서 목욕탕에서 의자에 앉아 씻으려다가 그만 엉덩방아를 찧어 척추가 내리앉으셔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된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어깨수술하러 가셨다가 나이가 이제 있으셔서 전립선암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와 재검사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그냥 염증수치이기를... 제발...그러나 그렇게 건강하시고 바른생활 사나이이셨던 아빠에게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립선암 3기...저희 가족은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바다였고, 정말 할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빠에게까지 이런 아픔이 찾아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맘을 다 잡으려했고 끝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 지나친 간절함이 시험에서 저를 떨리게 만들었고...장지연 선생님이 강의 중간에 말씀하시던 합격생분의 시험불안증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바로 전날이었나...교육학 문제

를 연습으로 푸는데 그전에 청심원으로 먹고 하니 너무 졸린거예요. 그래서 시험당일날 아침에 짬뽕만 먹고 교육학 시험을 봤는데..정말 아는 문제가 별로 없더라구요. 충격의 도가니에서 전공문제를 푸는데도 긴장이 이어졌는지..너무 떨려서 학원에서 상위권이었던 제가 문제가 흔들려서 보였었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글을 읽는데 머리 속에 글자의 해석이 되지않더라구요. 문제를 볼 때에도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하는데, 협소하게 보게 되어 그렇게 많이 봤던 내용을 어이없게 틀리고, 또한 아는 문제에서도 시간이 부족하고 떨리고 불안하니 답을 썼는데 다른 기호에 써놓고...실수의 연속으로 1차에 합격을 하였으나 높지 않은 점수로 붙었어요.

## -임용을 한 계기/ 동기

제가 졸업한 해에는 전국에서 미술을 35명 뽑던 해로 그 해에 1년만에 준비하고 된 대학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친구는 서양화과로 학교를 다녔을 때 당시, 서양화과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 방에 가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아, 임용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되는거야.’ 라고 저를 한계의 틀 안에 가두고 시간제 강사, 방과후 강사, 회사생활을 잠시하다가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기간에도 저는 늘 무엇인가를 해오려고 노력해오던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봄에 후배의 결혼식에 갔다가 임용에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던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기의 임용합격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뒷통수를 맞은 격이었습니다. ‘그 동기는 자신에게 한계를 짓지 않고 노력해서 됐는데, 나는...나에게 한계를 짓고 노력도 하지않았구나..’ 란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나도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우선적으로 한국사 자격증을 먼저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수월하게 한 방에 취득을 했죠.

그러나, 처음의 초수 생활에서는 많은 궁금증을 가졌고 해결할 방법이 정말 없더라구요. 그래서 합격수기를 읽기도 해보고, 합격한 지인에게 묻는데,, 친하지가 않아서 너무 물으니, 불편해하더라구요.

따라서, 제 글이 초수에게나 재수, 장수생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성해봅니다.

	교육학	전공	1차 합격컷	실기	실연	면접	최종합격
초수	10.?	52					
재수	18.67	51	+0.02	26.67	17.88	45	-1.4 부족
삼수	12.33	46.67	+3	28	16.01	43.74	-45 부족
사수	16.67	56	+9.67	20.67	16.98	43.17	+2.6

마지막 합격한 해에 1차가 제가 한 실력 중에 제일 높았고, 2차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낮았습니다. 실기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학원스타일이 너무도 강하면 점수를 안 줬다는 말이 도는데 어떻게 채점이 된건지 모르겠네요. 학원에서도 나름 우수한 성적의 그림이었고, 작년에는 28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점수를 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실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정말 후련한 기분이었고 전날에 학원에서 연습하던 그림과 비슷하게 나와서 이번 것은 작년이랑 비슷하거나 더 올라가겠지? 란 생각을 갖고 있던터라 합격자 발표를 봤을 때 실기점수를 보고 충격을 먹었죠. 비록 동양화전공이라서 제 전공이 아니라 그렇다하더라도 기본적인 그림 실력은 있어서 그렇게 못 그리는 스타일이 아니 었거든요. 그래서 더욱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죠.

뭘..이미 끝난 것이라...(참고로 저희 충북에서는 작년 면접관이 같은 분이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너무나 당황했는지 ...면접을 연습하던만큼 하지도 못하고 실수투성이여서 면접 끝나자마자 영영 울었습니다. 그것도 평평이요. 다음날 실연준 비도 해야하는데 도무지 잡히지도 않고 목사님께 전화해서 기도받고 현직에 계신 친한 쌤께 전화해서 마인드컨트를 하느 라 힘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궁금해하실 공부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초수 때 힘들었던 것이 공부방법과 공부를 자기화해야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하지? 도대체 공부의 자기화는 어떤거지?’ 이것이 정말 많이 궁금 하더라구요.

초수 때 5월에 한국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시험자격을 받고 본격적인 임용시험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아는 내용이 없어 강의를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학습의 복습시간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터무니 부족했으니깐요.

그러면 2번째해부터 1차합격의 노하우를 지금부터 저의 공부방법에 대해 의문점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 II. 합격요인 분석

### 1. 요약

공부할 때의 주의점	합격요인
1. 서브노트의 지나친 집착성 금지	1. 실패요인분석 2. 나만의 서브노트 정리 3. 스터디 (교육학/ 교육과정/ 전화/ 복습스터디) 전화스터디는 째 시간을 내는 시간활용법 4. 질문하기 5. 복습하기 6. 기출분석 7. 종교 8. 운동으로 체력보강

### 2. 상세적인 내용

공부할 때 주의점	<b>1. 서브노트의 지나친 집착성 금지</b>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어 한 케이스입니다. 자료는 많아지고 쌓여지는데 이것을 한번에 보지를 못해서 단권화가 필요했습니다. 첫째에 서브노트 만들기와 서브노트를 폰트로 예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다보니 회독을 많이 못해서 많은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서브노트 덕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도 알 수는 있었으나 폰트가 너무 작고 회독이 적어 소수 점차로 붙은 것 같아요. 두번째 해에 되었을 때에는 제가 많이 보면 머릿속에 글씨가 이미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해에 만들었던 서브에서 폰트가 작으니 다시 기억을 했을 때 점으로만 기억되는 것을 깨달아 서브노트를 전면 수정하여 장수가 많아지더라도 폰트를 크게 하여 한 눈에 봐도 서브노트의 장면이 떠오르도록 읽고 말로 인출하였습니다.
합격요인	<b>실패요인 분석</b> 저는 합격수기를 들으면서 저의 실패요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험실패 원인 분석                              → 철저한 나의 분석이 합격의 지름길을 만든다.                              -1차 시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분을 틀렸는지, 암기가 부족했는지, 실수로 문제로 잘못 읽었는지의 원인 파악</li> <li>단점을 극복해야 합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유형 파악- 어떤 문제 유형에서 잘 틀리는지의 파악 필요</li> </ol> </li> </ol>                             ex) ㉠ 문제를 잘못 읽고 빠뜨리는 부분 有 → 정신력 부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헬레니즘, 아르테포베라, 과슈 등의 비슷한 문제의 유형                                      → 반대적으로 힌트를 줬는데 반대의 힌트를 찾지 X → 힌트를 줬는데 힌트 파악 X</li> <li>개념을 자세히 적지 X, 핵심어, 부가설명을 자세히 X                                      → 비교, 서술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구분을 X → 개념채우기 필요</li> <li>모르는 도판이 나왔을 때, 적용력 부족                                      → 도판의 특징읽기, 년도, 제목보기 등의 문제에서 힌트를 다양하게 찾는 연습 필요                                      → 도판과 사조의 특징을 이어서 연습(이론과 도판의 적용연습필요)</li> <li>답안작성 미흡, 구체적인 키워드 작성(모범답안에서 체크하여 빠진 키워드 채우기)</li> <li>정확한 이해 X 외우는데 치중 → 글자를 통으로 외우려함</li> </ol> </li> <li>기본서 회독 부족</li> <li>기출분석 미흡</li> <li>긍정적 마인드 부족</li> <li>오답노트 작성 미흡</li> </ol>
서브노트	<b>① 서브노트의 나만의 방식의 정리</b>

저는 서브노트를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했어요.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 영역을 묶어서 정리했어요.

예를 들어, 위상교재에서는 미술교육론, 교육과정, 표현파트와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가 분리되어 있는데 저는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즉,

1. 미술교육론
2. 관화, 서예, 공예, 디자인사, 디자인
3. 조소, 조각사, 건축사
4. 전통회화(표현) + 동양미술사
5. 서양회화(표현) + 서양미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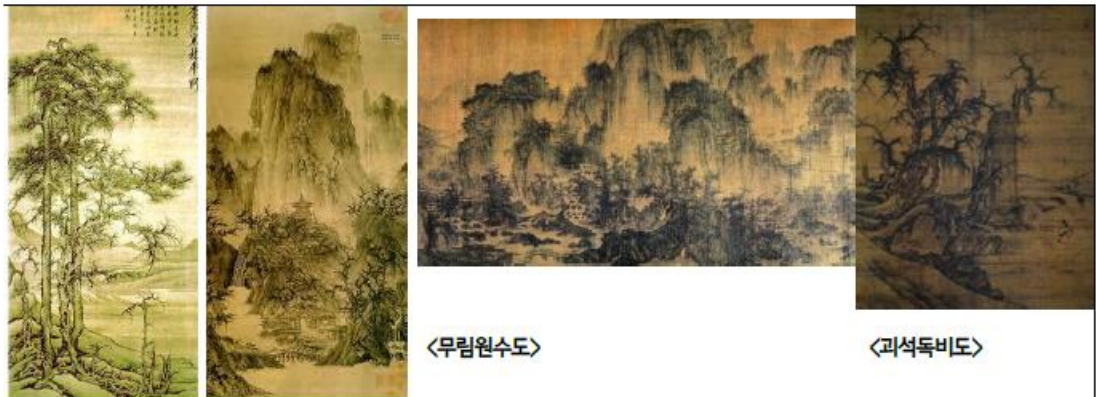
표현의 전통과 동양미술사를 묶어서 한영역으로 봤고, 서양미술사도 회화표현방법, 서양화 관련 표현파트를 서양미술사와 엮어서 한영역으로 봤어요. 다른 관화, 서예/ 공예, 디자인사, 디자인을 표현영역으로 묶되 중요도와 양의 비율에 따라 봤구요.

(cf. 교육과정은 매일 봐서 영역으로 공부할 때는 영역포함에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일 잘 외웠고 자신있던 부분이라 늘 인출로 확인하는 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폰트까지 섬세하게 위상선생님께 배운 작은 글씨는 연결성이 되도록 명조체로 하고 중요한 키워드는 주목성과 명시성을 고려하여 고딕체로 변경해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볼 때에 한 눈에 들어오도록 폰트도 키워가면서요.

## ② 서브노트의 표 형식 정리

✧ 북송 (960-1279)



<한림평야도>

<청만소사도>

<무림원수도>

<괴석독비도>

이성	영향	관동의 화북산수
	의의	한림평원을 그린 산수화/ 거비파(범관과 함께 거비파로 분류)
	주제	수목으로 산림, 호수, 평원, 폭포와 다리, 굽이치는 강, 눈, 안개 낀 자연
	표현	재료 종이, 수묵
	방법	형태 평탄한 산+들의 수평적 전개
	조형	필법 치밀한 붓질
	특징	준법 가늘고 짧은 우점준, 개발름 같은 해조묘
	구도 근경에 평원의 공간을 놓고 산을 놓는 극단적인 배치의 구도법	
계승	범관, 광희	

이런 식으로 영향 받은 유파나 사람, 의의, 주로 한 주제, 표현방법. 표현특징 등을 표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하나 이것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제가 다시 공부를 한다면 기본서에 옆에 첨부하는 식으로 할 것 같아요.

## 스터디

저는 오프라인 스터디보다는 온라인 스터디, 전화스터디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프라인 스터디를 하다보면 만나러가는 시간, 거기서 스터디를 하다보면 공부를 하다가 힘들어 뜻과 다르게 잡담을 하게 되어 시간할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전화스터디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 1. 온라인 스터디- 밴드스터디

<p><b>교육학</b></p>	<p><b>2번째 해</b></p>	<p>교육학 영역별로 돌아가며 5문제씩 내고, 8시까지 보고서나 인출형이로 백지 스터디하기</p> <p>-영역별 예시 :교육사, 철학/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생활심리/ 교육방법 및 공학/교육행정 등 순으로 요일별로 담당샘이 문제를 내는 형식입니다.</p>
<p><b>전공</b></p>	<p><b>교육과정 스터디</b></p>	<p>요일별 2015개정 교육과정 중요도에 따른 영역별 문제내기</p> <p><b>2번째해</b>- 내용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등 분할해서 문제 내기</p> <p><b>마지막해</b>- 그전에 했던 분들과 해서 이제는 제가 했던 방식으로 과목마다 <b>표형식</b>으로 해서 통(내용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외웠습니다. (따라 오셨던 분들이 제가 좀 독한 방식으로 하다보니 많이 허덕이셨지만 끝까지 잘해주셨어요.)</p> <p><b>밴드에서 요일에 자신의 영역을 맡은 사람들</b></p> <p><b>월: 미술창작</b> <b>화: 미술감상과 비평</b> <b>수: 고등미술</b> <b>목: 중등 미술</b> <b>금: 미술목표(미창, 미감비, 중고등 미술목표), 교과역량, 학급별목표</b> <b>토: 교수방향, 평가방향</b></p> <p>요일별로 제가 정한 시간에 백지스터디를 해서 무엇이 계속 구멍인지 체크를 했습니다.</p> <p>바로 백지스터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p> <p>처음 2015개정 문제가 나온다고 했던 해에는 제대로 못 외워 다음해에 본격적으로 백지스터디를 하다가 안 외워서 입으로 외우는 식으로 했습니다. 교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제가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우고 이에 따른 성취기준이 뭐지 연결을 해가면서 외웠습니다. <b>단. 순. 히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생각해가면서 외웠죠.</b> 정말 안 외워지는 것은 앞글자를 따서 외웠어요. 근데 그것도 성취기준과 연결해서요.</p> <p>예를 들어, 미술창작에서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주. 수. 자. 브’ 했다면</p> <p>주: 주변의 대상과 환경을 관찰하고 특징을 파악하여 표현주제로 발전 수: 수업 여건을 고려하여~ 자: 자신의 내면, 사회적 현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브: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체크리스트, 시네틱스~</p> <p>이렇게 해서 장샘이 내시는 교육과정은 이미 제 머리 속에 표형식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어서 자만할 때만 빼고 거의 교육과정은 자신있는 항목이었습니다.</p>

### ※ 교육과정 예시

**2015개정 미술창작 표현계획** =관찰법,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보고서법, 프로세스플리오프/ 표현과 확장= 관찰법,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보고서법, 심기평가, 프로블리오프

영역	핵심 개념	암암연마 지시	내용 요소	성취기준	핵심 요소	교수-학습 병행 및 유의 사항	대안-인지 및 평가기준	경의(역량) 평가기준	기능
표현 계획	발상	주변의 대상, 개념의 정제, 사회 현상 등을 통하여 주제를 설정한다. 다양한 정보의 자료를 수집하여 주제를 구체화한다.	표현 주제	[12미창1-01]주변의 대상에 관찰하고 특징을 파악하여 표현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주제 구체화	수업 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주제를 선정(나눔)하여 협의의 특징을 관찰, 조사, 탐색한다.	관찰력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생각하고 시각화하는 능력	발상, 구성, 표현 능력
			정보 수집	[12미창1-03] 표현주제에 적절한 소재를 탐색하고 선택한다. [12미창1-04] 정보 수집-다양한 방법을 탐색하고 활용한다.	정보 수집 방법	소재를 탐색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재가 다양하게 표현에 활용되었음을 이해하고 기록한다. 현장 견학, 서적, 인터넷, 인터뷰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 수집 능력		
	실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주제에 적합한 제작과정을 계획한다.	아이디어 시각화	[12미창1-05] 아이디어를 스케치, 모델링 등으로 시각화한다.	아이디어 스케치/ 모델링	리프 스케치, 실체인 스케치, 에어스, 밴더링, 모델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시각화 능력		
	제작 과정 조직	[12미창1-06] 제작 의도에 적합한 표현 매체, 요소, 방법 등을 탐색하고 선택한다. [12미창1-07] 제작 단계에 순서를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제작의도	학습자 스스로 실험해보고 자신의 표현의도에 적합한 것을 실험하도록 지도한다.	제작과정	제작 과정의 구성에서 작품 계획서는 작성하고 상호 점검을 통하여 수정 보완한다.	제작과정 계획 및 조직 능력	표현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표현과 확장	제작	조형 요소와 원리, 다양한 표현 기법 활용하여 주제에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평면, 입체, 영상 등의 표현 매체를 실험하거나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표현 효과	[12미창2-01] 조형 요소의 원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제에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12미창2-02] 표현 기법을 특징을 알고 능숙하게 적용한다.	조형요소와 원리의 활용	조형 요소와 원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해보고 효과적 표현에 주제 표현에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주제의 창의적 표현 능력	실험적 태도	표현, 표현, 평가, 반영 능력
			매체 활용	[12미창2-03] 회화, 포스터, 디자인, 공예, 영상, 컴퓨터그래픽 매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표현 기법으로 실험한다. [12미창2-04] 회화, 공예, 영상, 컴퓨터그래픽 매체를 융합하여 표현하고 활용한다.	제작 실험	장르별 표현 매체를 연구하여 표현한 예시 작품을 찾아보고 새로운 표현 방법을 실험한다.	매체 실험 및 융합 능력		
	성찰	완성된 작품을 평가하여 다음 표현에 반영하여,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발표를 통해 자신의 소용이 작품을 발전시킨다.	작품 분석과 반영	[12미창2-05] 작품 제작 의도를 파악하고 표현 매체 활용의 특징, 조형 원리를 찾아보고 분석한다. [12미창2-06] 작품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작품을 수정 보완, 새로운 작품을 제작한다.	작품 분석과 반영	완성된 작품을 연구하여 기법, 구성, 분석하여 작품의 특징을 찾아보고, 조형 원리를 찾아보고 분석한다. [12미창2-06] 작품을 분석하여 반영한 창작 능력의 정도를 돌아보는 것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작품 분석 결과 반영 능력	작품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발전시키는 태도	
			진시 평가	[12미창2-07] 작품 전시회 기획에 참여할 수 있다. [12미창2-08] 프로블리오프 제작에 과정과 결과와 점검한다.	전시평가	교실, 복도, 학교 안이나 지역 사회에 공간에 활용하여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로 지도한다.	작품 전시 기획 능력	작품 발표를 통해 발전시키는 태도	

### ※ 스터디 운영 예시자료

#### \*공지사항\*

Daily 교육과정 백지쓰기

☞ 결석권 주장 2회, 지각권 1회 사용변경!!

☞ 출제자순서 1달기준\* 9시까지 책, 임, 감 있게 출제!

(해당요일 출제자는 사정상 스터디를 못하시게 되는 경우 응원해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 ☞ 순서

월: 미창 (내용체계 구성요소, 성취기준, 교수학습방향,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화: 미감비 (위의 내용과 동일)

수: 고등미술 (위의 내용과 동일)

목: 중등미술 (위의 내용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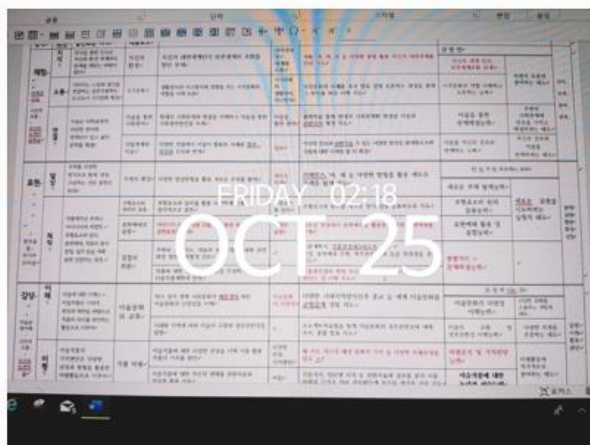
금: 교과역량, 총괄목표, 학교급별 목표, 일반선택 중등미술목표, 세부목표  
진로선택: 미감비, 미창 목표, 세부목표

토: 교수방향, 평가방향

☹️ 인증시간- 자신이 공부마치는 시간까지입니다.

굳이 한다면 하루지나고 새벽 4시전?ㅋㅋㅋㅋㅋㅋ

- 토요일에는 일요일 12시까지입니다.



10월 25일 오전 2:19 · 표정짓기

#### 하루복습 스터디

주간별 계획표를 일요일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올리고 그 주에 자신이 학습한 내용 복습인출스터디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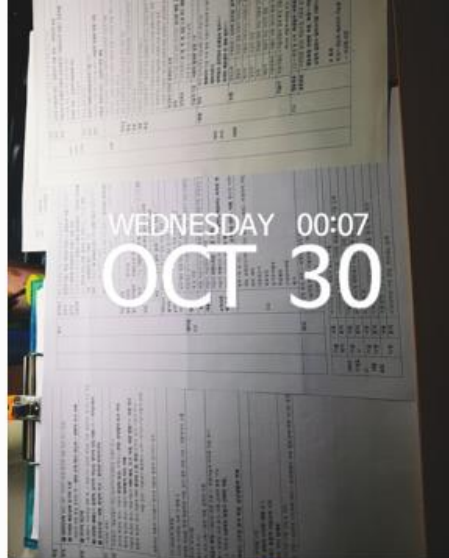
내가 알고 있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복습만이 답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자기화입니다.

복습을 통해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기화라고 생각합니다.

※복습 스테디 예시자료

10. 28~11.2

28 교행	29 교십	30 교방 교육학 모교 강의	31 교육과정	11/1 교평, 사	11/2 교 생, 사, 철학
CU 미창 미 M/V 서미사 1	CU 미감비 미 DB-아트 서미사 2 주소, 조각사	CU고등 미 표-재 건축, 조형사	CU중등 미-아동, P, 창 동양미술사 한국회화사	목표,역량 미학, 감, 비평 디자인사 서예, 판화	교육학 A/ 전공 A/B/ 최, 위 Q



10월 30일 오전 12:31 🧡 1 · 표정짓기

전화  
스테디

**전화스테디는 짬 시간 내서 공부하는 활용법입니다.**

전화스테디를 3년을 꾸준히 했는데요. 첫해에 정말 말할 대상이 없어서 우울하고...재미도 없고 눈물만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전화스테디를 하면서 말할 대상이 생기니 정말 좋더라고요. 스테디를 마친 후 잠깐 짬을 내서 수도도 떨구요.ㅋ(많이 하면 해가 됩니다. 적당히만.ㅋ)

첫해에 제안한 저와 함께 3년을 같이 달려온 쌤이 있습니다.

이분 덕에 점심과 저녁을 먹을 시간까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표현영역은 조금 자신있었습니다.

표현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모든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만심이 들지 않도록 걸러내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과 저녁 시간에 그 쌤과 함께 침에 제가 만들었던 서브를 통해서 해당 파트를 '철불의 제작과정'을 말해보라고 하면 그 순서를 말해보는 식으로 왔다갔다하면서 했어요. 즉 판화영역에서도 오늘 볼록판화에서면 '직판화의 장, 단점'을 질문하고 상대방은 키워드가 있는지 체크해주고 빠진 키워드가 있으면 채워주는 식으로요.

저는 디자인이 정말 힘들었는데 첫해 이 쌤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쌤은 저를 통해 섬세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에 자극받고 저는 그쌤의 사고를 공유받으면서 제가 놓치는 부분을 서로에게 채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도 그쌤이 아교의 역할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저는 전공자여서 이것저것 알려주고 또한 '미장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었는데...ㅠ 제가 한 귀로 뺏는지 못했었지만...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단, 길게 되면 서로 컨트롤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것이 서로에게 맞았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에서 서로를 배려를 잘 해주려고 했습니다. 언쟁도 있었지만 그 밑에는 배려라는 것이 있어서 제대로 스테디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질문하기**

**1. 직장에서 장자연 쌤에게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 물어보기**

-5월~10월까지 청주에서 서울까지 토요일마다 직장에 갔는데요. 일주일동안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 풀이시간이 끝나고 장쌤에게 질문타임에선 거의매주 장쌤에게 묻고 해결하고 혼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올해에는 장쌤이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아이들까지 있어서 정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끝까지 질문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2. 스터디에서도 모르는 부분 알때까지 해결하기**

-제가 단어에 대한 의미를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공부를 하다가 이게 뭐지? 모르는 부분들은 국어 사전이나 세계용어사전, 현대미술사전, 한국회화용어사전 등을 활용해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려 했습니다. 장자연 쌤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이번해에 11월달쯤 디자인 영역에서 안티디자인과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의 차이가 뭔지 계속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맘 맞는 공부하는 쌤들과 톡에서 물어보고 해결한 후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결하고 시험장에 가세요.

**복습하기**

**1. 모의고사풀이 시간에 대한 복습은 당일 또는 다음날에 꼭 해결**

-복습은 바로 그 날에 하고 머리 속에 넣어야 자신의 것이 됩니다. 최대한으로 저는 복습스터디를 하다가 청주까지 내려가야하는 시간이 있고, 그날 복습을 끝내고 싶어 혼자서 강의를 녹음했던 것을 다시 들으면서 빠진 내용을 채우고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했습니다.

-제가 못했던 부분인데, 다시 학원에 오기전날에 한번더 복습하기를 권합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내 머리속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워드로 오늘 학습에 대한 백지 인출하기**

손으로 쓰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스터디 했던 쌤이 권장했던 워드로 인출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특히나 기출분석에서 앞으로 내용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지 워드로 인출해보면서 모르는 내용은 다시 워드로 계속 써 나가니 머리속에 입력이 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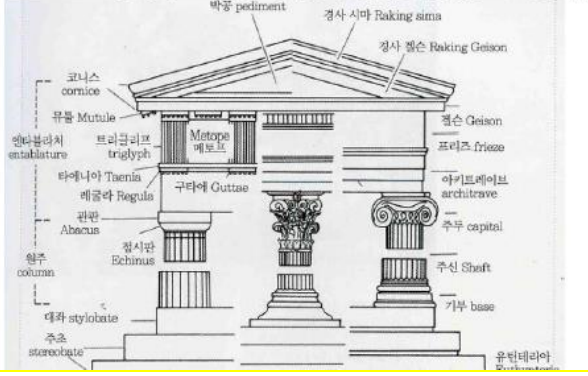
**모르는 내용 스스로 학습**

**파트별로 서브노트를 정리하면서 모르는 내용이나 혹시나 하는 내용 등을 추가적으로 넣고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두기**

-예를 들어 건축파트를 정리하다가 그리스건축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로마건축에 대한 내용도 있어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혹시나해서 작년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수보다도 재수이상 분들은 공부를 하다가 중요도 있는 시대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미용에 있는 내용이니 세미용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 해주셔도 될 것 같구요. 작년(시험보기 전년도)에 정리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니 감사하구요.

**구조특징**

- ① 아케이드: 열주에 의해 지탱되는 아치의 연속적 구조물과 그것이 조성하는 개방된 통로공간
- ② 아크로테리움: 그리스, 로마신전의 페디먼트의 정상부분 및 양 모서리에 얹은 장식물 / 팔레트 모티브
- ③ 아키투레이브: 열주가 받치고 있는 부분으로 아키투레이브 위에 프리즈, 코니스가 얹혀지는 수평의 대들보 부분/ 프리즈, 코니스, 엔타블러처를 이룸
- ④ 페디먼트: 박공/ 창 또는 출입구 윗부분의 장식, 건축물의 내외에 사용
- ⑤ 엔타스양식: 수직의 평행선인 경우 중앙부가 오목해 보이는 착시현상을 방지 위해 중앙부의 직경을 상하부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하는 기법
- ⑥ 라이즈 양식: 긴 수평선의 경우 중앙부가 처져 보이는 착시현상 외관의 수평요소인 기단과 엔타블러처의 중앙부를 약간 솟아오르게 하는 기법



**아트리움:**

- ① 로마의 주택에서 실내에 설치된 중앙의 넓은 마당
- ② 지붕의 경사를 안쪽으로 모이게 하고 그 중앙부에 장방형의 천장을 만들어 그 아래에 빛물을 받는 연못 설치
- ③ 벽면 아케이드: 계구부X, 기둥이 벽면에 장식적으로 붙어 있는 것 예) 콜로세움





**기출 분석**

**영역별 기출분석 (재수이상~)** 초수생들은 아직 영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기존 학원교육 과정을 파악하신 후에 기출분석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미술교육론/ 교육과정/ 서양미술사/ 동양미술사/ 한국미술사/ 기초회화, 전통회화. 조소. 판화, 서예, 공예 등으로 파트를 나눈 다음 2002~2019년도 까지 전화스터디 한 샘플 서로 어떤 부분이 앞으로 나올지 이제까지 나온 기출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정리해 나갔습니다.

**예시**

11. 조선 전기에는 중국 화풍의 영향을 받아 (가)와 같은 그림이 많이 그려졌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나)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나)와 같은 그림의 ①시대적 배경과 ②그로 인한 표현상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4점)



(가) 고사관수도(부분, 장희안)



(나) 파적도, 김득신

- ① 시대적 배경 : \_\_\_\_\_
- ② 표현상의 특징 : \_\_\_\_\_

년도	2002	영역	조선인물화
관Q	고사인물화 VS 풍속화 / 2017		
예Q	도석인물화 VS 풍속화 화풍차이 비교 소재: 도교, 불교의 관념적 도상 VS 조선의 실제 인물 기법: 화면구성:		
	시대적 배경과 그로 인한 표현상의 특징-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 주자 추종/ 사의적산수화(소상팔경도, 사시팔경도 전개) 조선 초기-사상: 유교사상에 입각한 문화/설리화→근검, 절약, 절제 수목중심 ↳ 삼강행실도(서민교과서, 문맹인 백성 유교의 교리 쉽게 널리 교육/ 의의: 시대 대표 인물, 산수, 계화 등 다양한 요소 표현/판각된 시기, 화가→양식적 차이) -정치: 친명정책/ 송유역불 정책 -사회: 유교에 의한 신분제 엄격/ 사, 노, 공, 상에 의한 차별적 신분/ 직업 귀천 -문화: 중국의 북종화풍(원체화풍), 남종화풍 유입, 호주족파 문인화풍, 화론 초기 계승(소식→강희명) 조선 중기-사상: 은일사상 -시대: 4대전란(임진, 병자호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당파싸움 나라 혼란 -문화: 절과 적극적 유입+안건과 화풍 절충적 표현/ 남종화 소극적 유입(고씨화보 유입) 조선후기- 사상: 실학사상 -사회, 정치: 탕평정책, 고론 등용, 시대적 안정된 시기/ 농업생산 증대, 상공업 발전, 시장경제의 성장 풍요로운 시기 - 문화: 남종화 유입(고씨화보/목판화, 개자원화전/다색판화, 색 표현 진경산수화 색표현 이유 중 1) 청의 문물 유입, 서양화법 유입/ 문예부흥기, 한문학, 여행문화 발달 조선말기-사상: 고종학 -시대, 사회: 대내-안동김씨 세도정치,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대외-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나라 혼란 -문화: 남종문인화 유입 복고적인 남종문인화		
	조선초기의 산수화 내용, 화면구성, 안건과 화풍 VS 강희안 화풍의 차이/ 인물표현을 위한 배경으로 존재 -산수가 배경으로 존재 자연은 선비가 관조하는 대상		

**모의고사 연습을 위한 직장**

저는 노량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실전적인 연습을 위해 직장에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시험불안이 2019학년도부터 간절함이 너무나도 커 장삼이 강의해서 말하던 시험불안 증상이 바로 저와 거의 다 일치하더군요. 그전에 먹던 청심원도 그 해에는 바로 전날에 먹으니 교육학을 보는데 너무나도 졸려, 시험당일에는 먹지를 못해 긴장이 더 되어 교육학도 어려웠던 해라 너무나도 당황했어서 알던 문제도 놓쳤답니다.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서요.

뿐만 아니라 전공에까지 여파가 가여 긴장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연습했던 내용들도 문제가 눈으로만 읽히고 머리 속에서는 해석이 되지를 않고 맥락도 파악되지 않아 정말 쉬웠던 문제들도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9점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대담함과 긴장감을 덜기 위해 종교를 믿고 실전연습을 위해 직장을 선택해서 다

	<p>냈습니다. 직장의 이점은 질문을 장샘에게 직접적으로 묻고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구요. 공부의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꿈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죠.</p> <p>3년 반 동안 모의고사 기간에는 문제풀이를 하러 가서 실전처럼 연습을 했습니다.</p> <p>저는 앞자리 쪽도 좋아하고 장샘의 강의 내용을 잘 듣기 위해 늘 매주 새벽 첫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태풍이 서울을 직타한다고 했던 때에도 고민하다가 신라의 만류에도 저는 버스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면서요.</p> <p>그만큼 저는 저에게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p>
종교	<p>이 부분은 사적인 부분이지만, 저는 시험불안이 컸던 사람이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마인드 컨트롤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비록 많이 단련이 되지 않았는지 그래도 좀 떨리긴 했지만,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의지할 곳이 있어 힘이 되었습니다.</p>
운동	<p>무작정 공부만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에 퇴근을 할 경우이기 때문에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시반정도에 헬스장에 가서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 스트레칭과 플랭크, 걷기 30분만 딱 필요한 요소만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선 7시 30분에 다시 독서실로 와 전화스터디를 하면서 밥을 먹고 8시 반경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 했습니다.</p> <p>최소한으로 운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만 하다보면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p>

### Ⅲ. 월별계획 (2019년도 4수차 때로 재수이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시간표 (평균 수면 시간-4~5시간 3년 반동안 지속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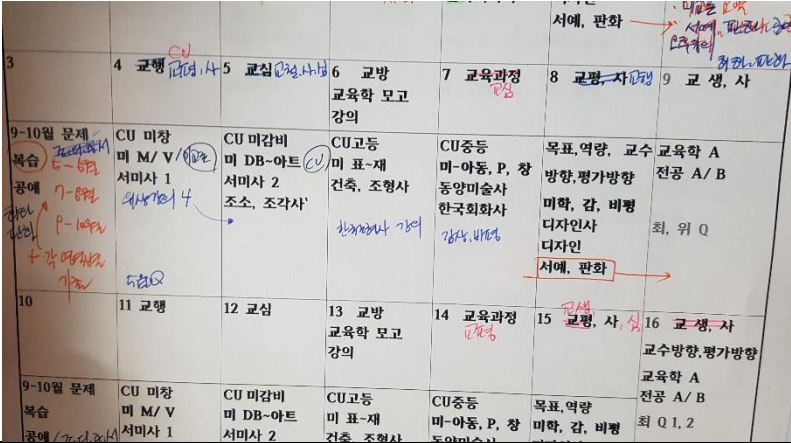
	평일날 공부 스테디 방향	직강가는 날
3수때만	세계미술용어사전 스테디	6:30~7:30
4수	아침식사	~8시00분
	독서실	8:30~50분 9시정도부터는 공부 시작
	교육학	9:00~11:00 ± 1h
	교육과정 백지인출	점심시간 전
	점심시간 스테디 (표현파트 인출 -회화, 조소, 판화, 디자인사, 디자인, 공예)	1:10~2:10 (+ 30)
	영역별 전공(숫자표기 일수) 판화+서예1/ 공예1/ 디자인사, 디자인 3 조소, 조각사, 건축사 2 전통회화(표현)+동양미술사 3 서양회화(표현)+서양미술사 3 (5~8월까지 이렇게/ 9~10월부터는 일수를 최대한 줄이려 노력 회독수 ↑)	6시 30분
	저녁스터디 (서양미술사, 동양, 한국미술사 기본서나 서브를 중심으로 중요한 키워드 인출)	7시~8시
	전공	8시:30~00시(+ 30분~1h)
	퇴근	00시 (상반기)/ 00시 40분 (하반기)
		4:30분 기상 5시25분 첫차 탑승
		시험시작 전까지 교육과정 교수방향, 평가방향 파트 인출
		9:00~12:30분 모의고사
		점심 도시락
		13:10~ 문제풀이 강의
		저녁 도시락으로 떼움
		문풀강의 이후 복습 21시까지
		22시정도 차 타고 집복귀

		집에 와서도 2시넘어 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12시가 넘어가면 힘들더라궁	
--	--	---	--

- 2.매일하는 영역:** 1. 교육학 10시전까지 목차인출까지/ 영역별 이론 공부 (2시간이내 완료) 이후 시간 나머지 전공  
 2. 교육과정외우기(영역별 요일에 따른 교육과정 외우기)  
 3. 하루복습 인출  
 4. 글씨만 있는 영역인 미술교육론도 계속 눈과 뇌에 새기려고 매일 보려고 했습니다.  
 (표현기능미술교육, 창의성중심, 학문중심, MCAE, VCAE 중요 내용 순으로 봤습니다.  
 허나 이것은 장쌤의 추천방법이 아니므로 저만의 방법이라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3. 월별계획표**

<b>2월</b>	시험의 결과가 나오는 달로 합격하면 좋으나 <b>최탈일 경우에는 멘탈이 많이 흔들립니다.</b> 따라서, <b>자신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그 동안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일들을 충분히 하여 마음을 추수리는 시간</b> 이 되었으면 합니다.	
<b>3~4월</b>	<b>심화 강의</b>	이 때는 다시 위상심화강의를 들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인드로 임하면서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연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개념에 대한 숙지를 해당 단어에서 어떤 것이 이 단어를 설명해줄 수 있을까하는 내용을 키워드중심으로 이해하고 외우려했습니다. (아직 멘탈이 흔들렸던 시기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인강을 시작하던 날에는 급작스런 속이 안좋아 구토와 위통으로 결국엔 공부를 못하였습니다. 지나온 스트레스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나봅니다.)
	<b>기출 분석</b>	기출을 강사가 해주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b>제가 스스로 더욱 공부</b>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전에 합격하셨던 샘들의 조언에서 <b>‘기출분석은 시험의 방향성이다’</b> 라는 말을 들었긴했지만 매번 어떻게 나왔지 대충 훑어보는 식이었습니다. 이번해에는 2002년도부터해서 짱스터디원과 함께 꼼꼼히 하나하나 캡처하고 그에 대한 예상출제 문제를 9월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b>※ 유의점</b> 너무 꼼꼼히 보고 스터디 때에만 하다보니 시간이 다소 길어진 경우였습니다. <b>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기출분석을 끝내고 많이 회독</b>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저는 시험불안으로 실수한 문제가 너무도 많아서 기출을 볼때마다 7월때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왜 또 실수를 했을까...또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원 직장을 다니면서 장쌤에게 상담을 받았을 때에 장쌤께서는 이때 ‘실수해도 년 붙는다~ ‘라고 문자도 보내주셨죠. 전화 스터디원은 저의 멘탈을 이길 수 있도록 늘 격려를 해주었구요.
<b>5~6월</b>	<b>영역별 이론</b>	영역별로 이론을 <b>요일별씩 돌리면서 서브를 정리</b> 하였습니다. 기본서를 보면서 서브에 이론이 불충분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봐가면서 이론 숙지
	<b>위상 서술논술 대비</b>	모의고사 감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서울로 직장을 다녔습니다. 앞자리 쪽을 선호하여 <b>새벽 5시 25분 첫차를 타고 서울로 직행..</b> 이번 해에는 사람들이 많아 첫차타고 가서 7시15~20분정도에 도착하는데 앞에서 5~6번째 줄에 앉아야 하더라구요. 501호는 거기가 딱 맞더라구요. 전체적으로 관망하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b>※포인트</b> 시험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b>내가 인출을 해내는지 그것에 집중</b> 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b>장쌤이 해주시는 채점은 꼭 받기를 추천</b> 드리구요. 글쓰는 형식과 묻는것에 대한 취지파악을 하는지 파악을 해주십니다. 저는 첫해부터 장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채점을 받고 질문도 하는 등 저를 각인시켜드리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아주 귀찮게 졸졸 따라다녀서 힘드셨을거예요~~>.<
<b>7~8월</b>	<b>영역별 이론</b>	영역별로 이론을 <b>요일별씩 돌리면서 이론 숙지.</b> 기본서 병행+심화이론
	<b>영역별 모고직강</b>	영역별로 이론 시험을 볼 때 제가 무엇을 자주 틀리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b>어떤 영역이 취약</b> 한지 보려고 했습니다.
	<b>체력관리</b>	스트레스 해소 및 체력강화
<b>9~10월</b>	<b>영역별이론</b>	영역별로 이론을 <b>요일별씩 돌리면서 이론 숙지.</b> 기본서 병행+심화이론
	<b>모의고사 직장</b>	이때엔 마지막으로 이론을 더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b>모의고사를 볼 때에는 무엇을 틀리고 부족한지 파악한 후 그날 복습하고 숙지</b> 하려고 했습니다.
	<b>체력</b>	헬스: 스트레스 해소 및 체력강화

	<b>관리</b>	<p>소금 가글: 감기예방 (장쌤 추천항목으로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큰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초기 감기가 온다고 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는 아프면 참는 스타일이었는데,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조금만 아프다 하면 병원에가서 빠른 치료를 하려고 했습니다,</p>
<b>11월</b>	<b>최종 이론 점검</b>	<p>직강은 나가지 않고 인강으로 돌려 체력관리를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래와 같이 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이론을 돌렸습니다.          이때에는 제 서브를 토대로 해서 이론을 돌렸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 11월 계획표</b></p> 
<b>12월</b>		<p>시험을 마치고나서 1주일만 폭 쉬고 그 담주부터는 달렸습니다.          실기학원과 수업 실연, 면접을 무조건 준비했습니다.          저는 실기보다도 수업 실연과 면접이 약해서 이것을 더욱 집중적으로 달렸는데요. 워낙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 등은 저도 모르게 떠는 바람에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했네요.</p> <p>저의 미술교과와 같은 예체는 교과는 실기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수업실연과 면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p>충북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50점이기 때문에 면접이 1순위, 2순위가 실기, 3위가 수업실연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성격이기에 저의 취약한 부분에 더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집중한 만큼 실력이 나오질 않아 속상하네요. 그래도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면 저와는 다르게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p> <p><b>면접</b>          면접은 시중에서 많이 보는 책이었던 '면접레시피'를 사서 스테디원과 영역을 나누어 공부했습니다. 주제별로 보고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12월달에 1회독밖에 못했는데요. 주제에 따른 내용을 12월 달에 꼭 다 숙지하시고 주제별로 나만의 답변 등을 워드로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p> <p><b>예를 들어, 독서교육의 활용방안으로는</b>          첫째, <b>다독다독반을 운영</b>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독 다독은 많은 다의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다독 나의 마음을 다독인다는 뜻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책을 선정하고 책을 읽고 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p>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답변을 3가지씩 정도 만들고 외워두시면 답변하기에 수월할 것입니다.</p> <p><b>수업 실연</b>          12월 달에는 기존에 나왔던 2차 기출내용을 토대로 2주 동안은 실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나왔고 이것을 수업을 하는데 어떤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주차부터는 이제까지 안 나왔던 부분으로 pck를 활용하여 나만의 수업틀을 만들어 두세요. 주제별로 따른 수업틀을 만들어 두시고 계속 해보시면서 수정하고 수정하면 좋은 수업안들이 만들어 질겁니다.</p>
<b>1월</b>		<p><b>면접</b>          최종합격하신 샘들께서는 기존에 만들었던 <b>면접답안들을 토대로 문제형식</b>으로 만들어서 연습하세요.          저는 2차경험이 여러 해가 있어 저의 스테디원과 함께 평가원문제형식으로 B4형식으로 만들어서 서로 문제를 돌려가며 풀고 10분동안 답변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드백을 받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날의 푼 문제들은 집에 오시는 길이나 다시 한번 복습하길 바랍니다.</p> <p><b>수업 실연</b>  <b>주제별로 따른 수업틀</b>을 만들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풀린 내용을 20분 구상 후 바로 시연이기 때문에 수업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틀이 있으면 어느 문제가 나와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첫째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빈칸이 뚫려있다는데 어떻게 하라는건가 이전에 1차합격생에게 물어봐도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아 있는 그대로 마구자비로 했습니다. 정말 엉망이었죠.</p>

	<p>그래서 2번째해에는 스티디원들과 강사문제를 토대로 뚫린 부분 풀고 시연하고 했는데요. 이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자신만의 수업들을 만드시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강사문제를 토대로 뚫린 부분 20분 구상 후 채우는 것을 하시길 바랄게요.</p> <p><b>맨 처음부터 빈칸 채우기를 하게 되면 수업들도 없는데, 실력이 매 그 자리입니다.</b> 이번 해에 연습하면서 같은 내용을 피드백 받았던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시연해보니 전체적인 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것을 먼저 12월달에 다 완료가 되어 1월에는 다 수정·보완하는 식으로 하셨으면 합니다.</p> <p>도입, 전개로 나누어서 도입에서 해야하는 내용들과 전개에서 해야하는 전개 1과 전개 2로 나누어서 하세요</p> <p>예를 들어, 도입에서 동기유발, 학습주제 제시, 학습주제의 필요성, 학습목표, 차시안내, 평가내용 제시, 모둠역할 확인, 참고작품 제시, 활동지 안내, 순회지도 등으로 수업들을 만드시고 이에 따라 내가 만능으로 넣을 내용 등을 만들어서 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p>
--	---

### 마치면서...

정말 공부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간절함이 너무나도 클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저를 지지해주는 시범니, 그리고 배우자인 신랑, 아이들 둘..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시댁에 대한 미안함을 가진 친정엄마 등.. 저의 어깨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아빠 또한 아프셔서 이제는 큰 딸로써 기쁨을 드리고픈 마음이 컸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려웠고 견뎌내기에는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이 길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많이 준비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저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낸 제 자신이 '기특하고 정말 꿈을 이뤄냈구나~! 장하다' 란 생각이 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삼도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저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 제 자신이 뿌듯합니다. 따라서,

**힘내세요~!!선생님들~~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꿈꿔왔던 코로나로 인하여 직무연수, 합격자발표 등을 하지 못하여 아쉽지만, 학교에서 신규 교사와 교무수첩을 받는 순간~ 아..교사가 되었구나..교무수첩에 대해 동생이 정말 노티난다고 하지만 이 수첩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던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다음에 오실 선생님분들을 응원하며 글을 마칩니다.